

---

##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의 주요 내용

- I. 2016년 국민순자산 규모 및 증감
- II. 제도부문별 순자산 및 경제활동별 고정자산
- III.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의 주요 특징
  - 1. 국민순자산은 명목GDP 대비 8.0배로 증가
  - 2. 고정자산/GDP 배율은 전년과 같은 수준, 토지자산/GDP 배율은 상승
  - 3. 비생산자산의 가격상승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
  - 4. 순자산 증가세는 비금융법인 확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축소
  - 5. 가구당 순자산은 3억 6,779만원
  - 6.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 계속 둔화

## 1. 2016년 국민순자산<sup>1)</sup> 규모 및 증감

2016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國富)은 전년(2015년)에 비해 715.0조원(+5.8%) 증가한 1경 3,078.0조원으로 추계되었다.

비금융자산이 1경 2,741.4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금융자산(1경 4,277.7조원)에서 금융부채(1경 3,941.1조원)를 뺀 순금융자산<sup>2)</sup>은 336.6조원을 나타내었다.

자산형태별로는 토지자산이 6,981.2조원으로 전년대비 409.8조원(+6.2%) 늘어났으며 고정자산이 5,378.8조원으로 201.0조원(+3.9%) 증가하였다.

2016년중 국민순자산은 715.0조원 증가하였는데 이중 자산 순취득 등 거래요인에 의해 276.8조원(38.7%) 늘어나고 거래외 요인<sup>3)</sup>에 의해 438.2조원(61.3%) 증가하였다. 2014년 이후 자산가격의 상승 영향을 반영하는 명목보유손익을 중심으로 거래외 요인이 국민순자산 증가의 60%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표 1〉

국민순자산 규모 및 증감

(조원, %)

	2014	2015 <sup>P</sup>	증감		2016 <sup>P</sup>	증감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국민순자산	11,674.8	12,363.0	688.2	5.9	13,078.0	715.0	5.8
비금융자산	11,582.2	12,123.4	541.2	4.7	12,741.4	618.0	5.1
고정자산	5,002.8	5,177.8	175.0	3.5	5,378.8	201.0	3.9
재고자산	327.8	331.1	3.3	1.0	333.9	2.8	0.8
토지자산	6,209.8	6,571.4	361.6	5.8	6,981.2	409.8	6.2
지하자원	19.1	19.9	0.8	4.0	23.5	3.7	18.4
입목자산	22.7	23.2	0.5	2.3	24.0	0.8	3.3
순금융자산	92.6	239.6	147.0		336.6	96.9	
금융자산	12,450.1	13,495.2	1,045.1	8.4	14,277.7	782.4	5.8
금융부채	12,357.6	13,255.6	898.0	7.3	13,941.1	685.5	5.2

주: 증감액 및 증감률은 전년대비

〈표 2〉

국민순자산 증감요인

(조원, %)

순자산증감	2013		2014		2015 <sup>P</sup>		2016 <sup>P</sup>	
	증감액	비중(%)	증감액	비중(%)	증감액	비중(%)	증감액	비중(%)
순자산증감	390.4	(100.0)	616.7	(100.0)	688.2	(100.0)	715.0	(100.0)
거래에 의한 증감	229.2	(58.7)	240.8	(39.1)	263.8	(38.3)	276.8	(38.7)
비금융자산순취득	136.8	(35.0)	142.8	(23.2)	145.5	(21.1)	156.8	(21.9)
금융자산순취득	92.4	(23.7)	98.1	(15.9)	118.3	(17.2)	120.0	(16.8)
거래외 증감	161.2	(41.3)	375.8	(60.9)	424.5	(61.7)	438.2	(61.3)
자산량기타증감	81.2	(20.8)	128.4	(20.8)	123.7	(18.0)	127.9	(17.9)
명목보유손익	110.6	(28.3)	213.6	(34.6)	272.1	(39.5)	333.4	(46.6)
금융자산거래의 증감	-30.6	(-7.8)	33.8	(5.5)	28.8	(4.2)	-23.1	(-3.2)

주: ( ) 내는 순자산 증감에서 해당 요인에 의한 증감이 차지하는 비중(%)

1) 국민순자산은 우리 경제가 축적한 부의 수준, 즉 국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국민대차대조표의 비금융자산(또는 실물자산) 가격과 국외부문에 대한 순금융자산을 합한 것이다. 국민순자산을 포함한 국민대차대조표는 2014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다.

2) 순금융자산은 우리나라 순대외투자(2,784.9억달러)의 원화환산액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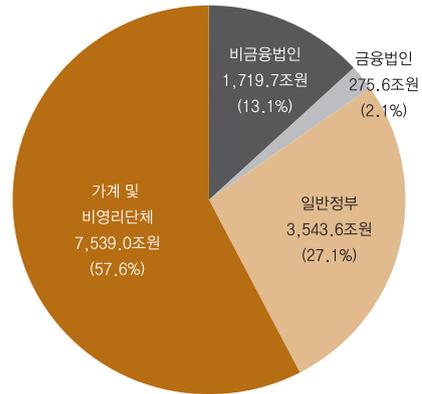
3) 간척, 토지의 용도변경, 자연재해, 지하자원의 발견 등 예상치 못한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자산변동인 자산량기타증감과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순자산 증감을 나타내는 명목보유손익 등으로 구성된다.

## II. 제도부문별 순자산 및 경제활동별 고정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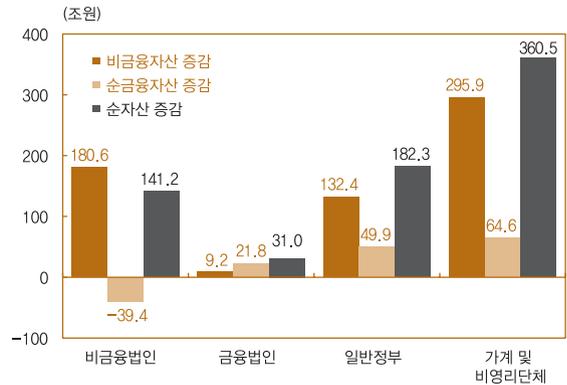
제도부문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2016년 말 현재 7,539.0조원(57.6%)으로 가장 많은 순자산을 보유하고 다음으로 일반정부(3,543.6조원, 27.1%), 비금융법인(1,719.7조원, 13.1%), 금융법인(275.6조원, 2.1%) 순으로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법인, 일반정부의 경우 비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순자산이 늘어났으며 금융법인의 경우 순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순자산이 늘어났다.

2015년말 기준 경제활동별 고정자산 규모는 서비스업<sup>4)</sup>이 3,814.1조원(73.7%)으로 가장 크고 광업·제조업 975.9조원(18.8%), 전기·가스·수도업 284.3조원(5.5%), 농림어업 61.4조원(1.2%), 건설업 42.1조원(0.8%)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중에는 광업·제조업이 4.0%, 서비스업이 3.5%, 건설업이 2.7%, 전기·가스·수도업이 2.3% 각각 증가하였다.

〈그림 1〉 2016년말 제도부문별 순자산 규모



〈그림 2〉 2016년중 제도부문별 순자산 증감



〈표 3〉

경제활동별 고정자산 규모

(조원, %)

전 산 업	2013		2014		증감률 <sup>1)</sup>	2015 <sup>p</sup>		증감률 <sup>1)</sup>
	조원	(%)	조원	(%)		조원	(%)	
전 산 업	4,826.0	(100.0)	5,002.8	(100.0)	3.7	5,177.8	(100.0)	3.5
농 립 어 업	58.3	(1.2)	60.4	(1.2)	3.7	61.4	(1.2)	1.6
광 업 · 제 조 업	898.6	(18.6)	938.1	(18.8)	4.4	975.9	(18.8)	4.0
전 기 · 가 스 · 수 도 업	271.5	(5.6)	278.0	(5.6)	2.4	284.3	(5.5)	2.3
건 설 업	39.9	(0.8)	41.0	(0.8)	2.9	42.1	(0.8)	2.7
서 비 스 업	3,557.7	(73.7)	3,685.3	(73.7)	3.6	3,814.1	(73.7)	3.5

주: 1) 증감률은 전년대비 2) ( ) 내는 전체 고정자산중 해당 산업 비중(%)

4) 서비스업에는 자산규모가 큰 부동산·임대(주거용 건물 등), 공공행정·국방서비스(정부 보유 자산)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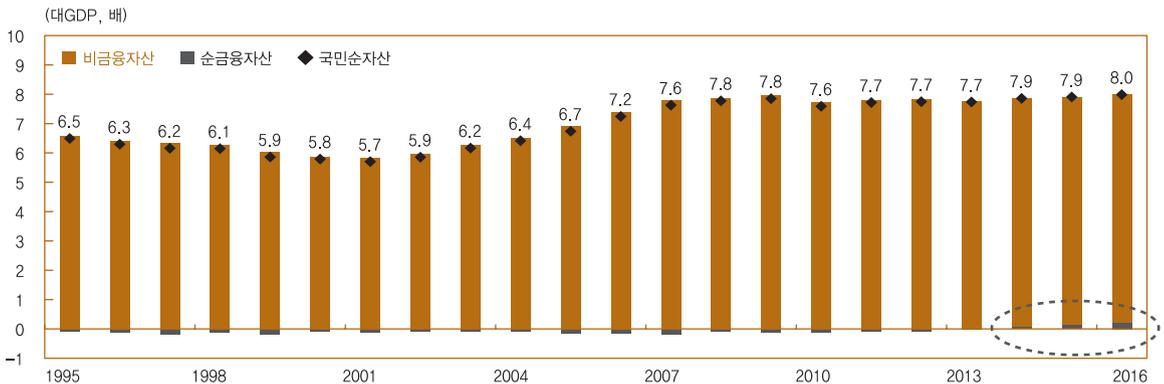
### III.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의 주요 특징

#### 1. 국민순자산은 명목GDP의 8배로 증가

2016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1경 3,078.0조원)은 명목GDP(1,637.4조원) 대비 8.0배로 전년(7.9배)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는 2016년중 토지자산을 중심으로 비생산자산의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순대외투자의 플러스 규모도 늘어난 데 기인한다.<sup>5)</sup>

세부 자산별 GDP 대비 비율의 2016년중 증감을 보면 토지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생산자산의 비율이 6.4%p 상승하였고 순금융자산도 5.2%p 상승하였다. 반면 고정자산(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산의 경우 2016년중 3.3%p 하락하였다.

〈그림 3〉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GDP 배율<sup>1)</sup>



주: 1) 1995~2007년중 국외부문에 대한 순금융자산은 국제투자대조표(IIIP)에 나타난 순대외투자의 원화환산액임

〈표 4〉 자산별 GDP 대비 비율의 변화

	2013	2014	2015	증감(%p)	
				2016	증감(%p)
국민순자산	773.6	785.6	790.4	798.7	8.3
비금융자산	776.3	779.4	775.1	778.1	3.0
생산자산	360.3	358.7	352.2	348.9	-3.3
비생산자산	416.0	420.7	422.9	429.3	6.4
순금융자산	-2.7	6.2	15.3	20.6	5.2

5) 우리나라의 순대외투자(대외투자-외국인투자)는 2013년 -372억달러에서 2014년 842억달러로 플러스 전환되었으며 2015년 2,045억달러, 2016년 2,785억달러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2. 고정자산/GDP 배율은 전년과 같은 수준, 토지자산/GDP 배율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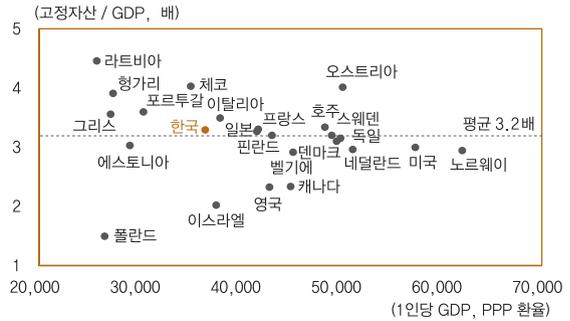
우리나라 고정자산<sup>6)</sup>의 GDP 대비 배율은 2016년 3.3배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고정자산의 GDP 대비 배율은 주요 선진국 평균<sup>7)</sup>(3.2배)과 유사한 수준이다.

한편 토지자산의 GDP 대비 배율은 2014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sup>8)</sup> 동 배율은 2007년 4.5배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3년 4.1배에서 2014년 4.2배로, 2016년에는 4.3배로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토지자산이 비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57.1%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완만히 상승하는 모습이다.

〈그림 4〉 우리나라의 고정자산/GDP 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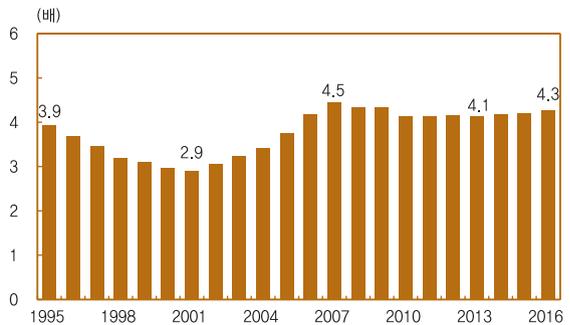


〈그림 5〉 고정자산/GDP 배율 국제비교<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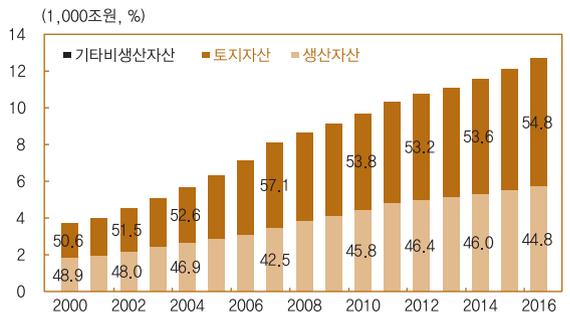


주: 1)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최근년 기준  
자료: OECD 통계DB

〈그림 6〉 토지자산/GDP 배율



〈그림 7〉 토지자산 비중



6) 고정자산은 건설자산(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토목건설), 설비자산(기계류, 운송장비) 및 지식재산생산물로 구성되어 있다.  
7) 자료 입수가 가능한 OECD 26개국 가운데 상하위 4개국을 제외한 18개국의 단순평균으로 계산하였다.  
8) 토지 유형별로는 공원, 체육용지 등 문화오락용 토지와 건물부속토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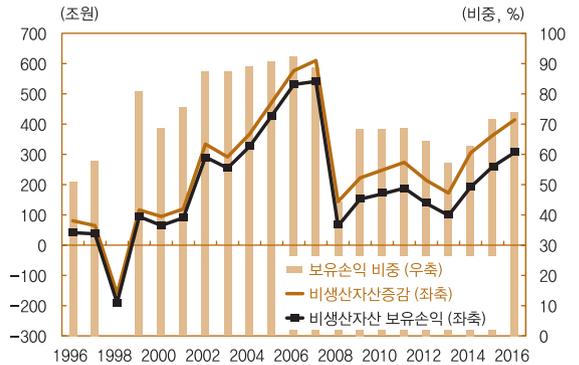
### 3. 비생산자산의 가격상승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

비생산자산(토지자산, 지하자원, 임목자산)의 가격<sup>9)</sup> 상승률은 2007년 13.2%에서 2008년 1.2%로 크게 낮아졌으나 2014년 이후 지가상승률 확대<sup>10)</sup>에 따라 2016년에는 4.6%를 기록하여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반면 생산자산(고정자산, 재고자산)의 가격상승률은 2016년 0.5%로 2013년 이후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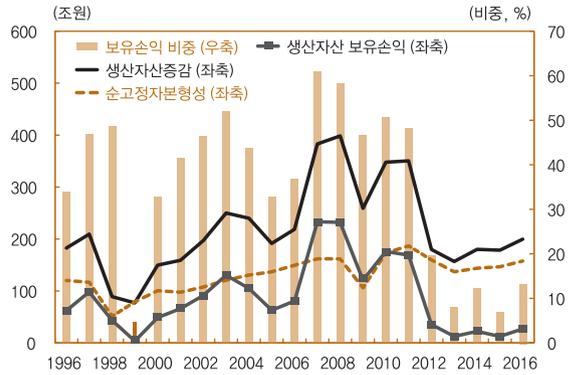
비생산자산의 가격상승률이 높아지면서 비생산자산의 명목보유손익<sup>11)</sup>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림 8〉 비생산자산의 증감과 자본이익<sup>1)</sup>



주: 1)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가액 증가분을 의미함

〈그림 9〉 생산자산의 증감과 자본이익<sup>1)</sup>



주: 1)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가액 증가분을 의미함

〈표 5〉

비금융자산별 자산가격 상승률<sup>1)</sup>

	02~07	08~11	12~16	2007	2008	2013	2014	2015 <sup>p</sup>	2016 <sup>p</sup>
비 금융 자산	9.0	3.5	1.9	10.6	3.6	0.9	1.9	2.4	2.7
생 산 자 산	4.5	4.4	0.4	7.3	6.6	0.2	0.4	0.2	0.5
비 생산 자산	13.2	2.8	3.1	13.2	1.2	1.4	3.1	4.3	4.6

주: 1) 비금융자산의 연평균 자산가격 상승률

9) 비생산자산의 가격은 비생산자산 명목금액을 연쇄실질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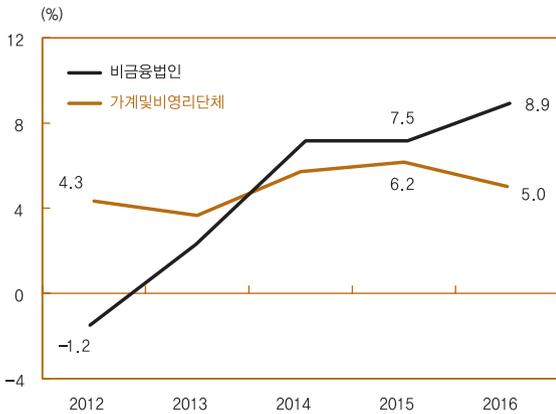
10) 전국 지가상승률은 -0.3%(2008년) → 1.0%(2012년) → 1.1%(2013년) → 2.0%(2014년) → 2.4%(2015년) → 2.7%(2016년)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11) 비생산자산의 명목보유손익은 2013년 98.1조원에서 2014년 191.4조원 → 2015년 259.6조원 → 2016년 306.4조원으로 증가하였다.

#### 4. 순자산 증가세는 비금융법인 확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축소

비금융법인의 순자산 증가세는 2016년중 확대(7.5% → 8.9%)된 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증가세는 같은 기간중 축소(6.2% → 5.0%)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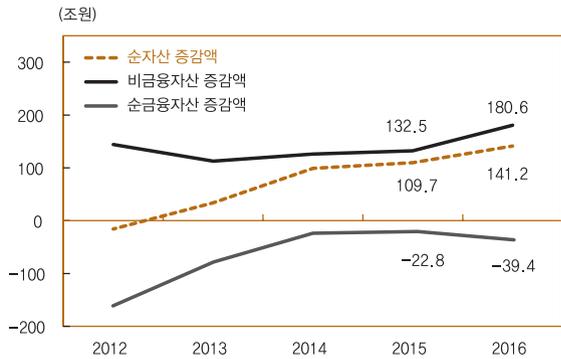
〈그림 10〉 제도부문별 순자산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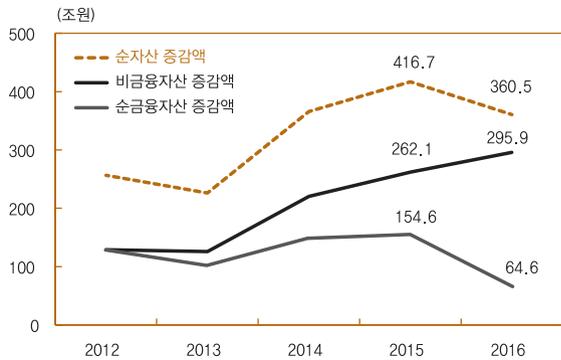
2016년중 비금융법인의 경우 비금융자산 증가액이 확대되면서 순자산 증가세가 높아졌으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경우 순금융자산 증가액이 줄어들면서 순자산 증가세가 낮아졌다. 특히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경우 비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금융부채가 크게 늘어난 반면 금융자산 증가세는 축소되어 순금융자산 증가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6년중 전체 순자산(국부)에서 비금융법인의 비중은 상승(+0.4%p)하였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중은 하락(-0.4%p)하였다.

〈그림 11〉 비금융법인의 순자산 증감 내역



〈그림 12〉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증감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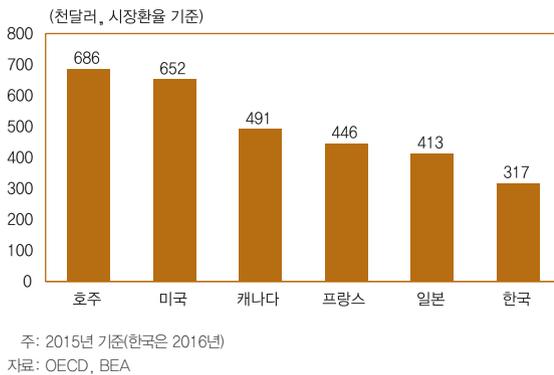
〈표 6〉 전체 순자산(국부)중 제도부문별 비중

	2012	2013	2014	2015(A)	2016(B)	B-A
비 금융 법인	12.5	12.4	12.6	12.8	13.1	0.4
금 용 법 인	1.8	2.0	2.0	2.0	2.1	0.1
일 반 정 부	27.8	27.8	27.5	27.2	27.1	-0.1
가계 및 비영리단체	57.8	57.8	57.9	58.1	57.6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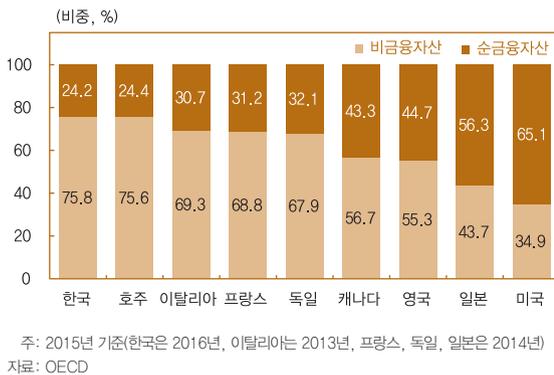
## 5. 가구당 순자산은 3억 6,779만원

2016년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기준 가구당 순자산은 3억 6,779만원으로 추정되었다.<sup>12)</sup> 이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은 시장환율 기준 31만7천달러로 호주(68만6천달러), 미국(65만2천달러)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구당 순자산 규모



〈그림 14〉 주요국 가계순자산 구성 비교



우리나라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중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2008년 이후 꾸준히 하락<sup>13)</sup>하고 있으나 2016년 75.8%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대표자산인 주택의 시가총액은 2016년말 현재 3,732.0조원으로 GDP 대비 2.28배 수준을 기록하였다. 동 배율은 2001년 1.53배에서 2009년 2.30배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나 2014년부터 다시 소폭 상승하였다.

〈그림 15〉 우리나라의 주택시가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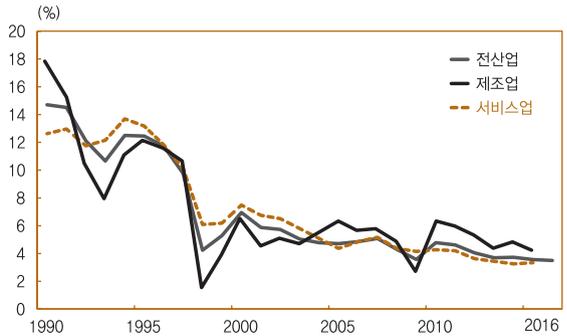


12) 가구당 순자산은 2016년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7,539,000억 원)에다 2016년 추계인구(51,245,707명)를 나누고 2016년 평균 가구원수(2.50명)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13)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금융자산 비중(순자산 기준): 82.4%(2008년) → 79.2%(2011년) → 75.5%(2015년) → 75.8%(2016년)

## 6.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 계속 둔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본투입량을 의미하는 자본서비스물량의 증가율<sup>14)</sup>은 2015년 3.6%, 2016년 3.5%로 완만히 둔화되고 있다. 이는 2016년중 건설자산의 실질투자 증가율은 높아졌으나 자본서비스 산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설비자산의 실질투자가 감소하고 지식재산생산물의 실질투자 증가율이 낮은 데 주로 기인하였다.<sup>15)</sup>

〈그림 16〉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



〈표 7〉

자산별 실질투자 증가율과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 및 기여도

	실질투자 증가율(% , %p)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 및 기여도(%p)		
	2015(A)	2016(B)	B-A	2015(A)	2016(B)	B-A
고정자산 전체	5.1	5.2	0.1	3.56	3.50	-0.06
				[기여도, %p]		
건 설 자 산	6.6	10.7	4.1	1.80	1.90	0.10
설 비 자 산	4.7	-2.3	-7.0	1.03	0.91	-0.12
지식재산생산물	1.8	2.3	0.5	0.73	0.69	-0.04

14)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은 전체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하위 자산 각각의 실질증가율을 해당 자산의 사용자비용 비중으로 가중합하여 계산된다. 자산의 사용자비용에는 자산구입을 위한 금융비용, 자산의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 자산가격 변동 등이 고려되며 사용자비용이 높은 자산의 증가세가 커질수록 전체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다.

15) 설비자산과 지식재산생산물은 내용연수가 짧고 감가상각률이 높기 때문에 건설자산에 비해 동일한 투자금액에 대한 자본서비스 산출효과가 더 크다.